광릮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2차 긴급 구호팀 파견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와 이재민에 구호키트, 푸드 박스, 긴급생활지원비 전달

3월 6일(월), 2차 긴급구호팀은 광림교회 성도 들이 준비해주신 파스, 연고, 밴드, 감기약 등 의약품과 문구류, 그리고 현지에서 물건을 구 입할 구호금을 갖고 튀르키예 5대 도시 중의 하 나인 아다나에 도착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가 장 크게 입은 안타키아(안디옥)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여진의 진동이 가끔 느껴지긴 했지만 안디옥에 비해 큰 피해 를 입지는 않은 곳입니다. 긴급구호팀은 이곳 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이틀 동안은 이 지 역으로 피난 온 성도들을 심방하고 구호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월 8일(수)에는 아다나에 도착하신 김정석 담 임목사님과 장로님 일행과 합류하여 지진피 해를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6명이 세례 받 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디옥 성도들 은 지진피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들을 도 운 것은 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가 아니라 바로 광림교회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 다. 이들에게 광림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긴 급생활지원비, 의료교환 바우처 등을 전달하 고 세례자들을 축하했습니다.

3월 9일(목)에는 안디옥 지진피해 현장을 돌아 보며 이재민 텐트촌에 방문하여 구호키트를 나 눠 주었습니다. 이재민들은 튀르키예에는 없는 파스, 핫팩 등을 보며 신기해했고 긴급구호팀 은 비타민과 근육통 연고 등을 튀르키예 언어 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캐릭터가 그려진 여러 문구류 들을 받고 좋아했고, 구호팀의 옷에 붙어있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튀르키예 국기를 보고 같 이 사진을 찍자고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스켄데룬, 베 렌 등의 도시는 현재는 아름다운 지중해와 따 뜻한 날씨로 매우 평화로워 보였지만 안디옥으 로 가까워 갈수록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과 이 재민 텐트촌은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 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긴급구호팀은 안디옥 입구에 있는 시리 아 난민 이재민 캠프를 방문하여 1,000여개의 구호키트와 푸드 박스를 나눠주고 위로했습니 다. 안디옥으로 들어서자 지진의 피해는 더욱 컸으며 70% 이상의 건물들이 파괴된 상태였습 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중장비만 이 바쁘게 움직였으며 아직도 매몰된 시신들 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서 구호팀과 성도들은 함께 기 도하고 앞으로의 구호와 재건에 대해 논의 한 후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아직 안디옥에 남아 있는 성도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이번 긴급구호팀에는 11명의 인원이 참가했습 니다. 현지 선교사인 장성호 목사는 "현지에 방문하셔서 감동과 은혜의 세례식을 베풀어주 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튀르키예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주신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를 전했습니다.

 2 광림의 강단
 3 광림 스토리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라
 강남지방회 은퇴장로 찬하예배

4 하나님들 언니니 튀르키예 현지 교인 세례식 하나님을 만나다

5 **믿음의 현장** 2023년 봄학기 교육프로그램

다음세대 LFC 청년부 겨울수련회 용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14)

본문의 비유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 두 사 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신 앙인처럼 보였고 신앙인처럼 말했습니다. 그 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높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가 강도가 아니고, 간음을 한 자도 아니고 세리도 아닌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 니다.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평가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 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 다. 즉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입니다. 바리새인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러 한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 했습니다(눅 18:13). '겸손'은 우리가 은혜 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 다.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기도 는 자기의 입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 나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겸손 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 니다.

첫째, 겸손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데 빠르고, 교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 적하는 데 빠릅니다.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애통 해하며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긍휼히 여 겨 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 다. 반면에, 교만은 죄를 고백하는데 느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빠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 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 다"(눅 18:11)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행위는 올바르게 보였지 만, 내면적으로 그의 마음은 교만과 이기심 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입 니다. 그는 동정심이나 긍휼을 알지 못했습 니다. 오직 자기 방식만이 옳다는 교만함 가 운데 있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보고 말하 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옳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 들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누 군가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 은 남의 부족한 것을 찾기보다 자기 죄를 고 백하는데 빠릅니다.



누가복음 18:9~15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 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 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 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 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 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 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 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 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 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 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 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 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 사 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 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둘째, 겸손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있었습니다(눅 18:13). 자신 의 모습이 비록 다른 사람들 보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 어디서나 주목을 받으 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 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주 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가 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잘 보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칭찬받

또한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상급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 손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 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급이 있 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금 당장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족이 있습 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겸손하 게 주의 뜻을 이뤄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 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한 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

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언급합니 다. 아마 신체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 다. 바울에게 불편함과 걱정을 일으키는 문 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 간구한 후 에,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가시 즉 고난의 이유에 대해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시'의 이유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 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 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7).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 한 일꾼이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래서 바울의 자아가 그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 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 울의 인기와 영적인 특권으로 인해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을 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약의 절반 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 나 또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 다. 그의 특권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려면 하 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아 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의 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 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라"(눅 18:14)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 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함으로 하 나님께 영광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 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43회 강남지방회, 은퇴장로 찬하예배 드려



서울남연회 제43회 강남지방회가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 광림교회 나사렛성전에서 지방회 회원, 구역대표 및 시상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1차 회집은 개회예배 및 성찬식에 이어 각 부서 보고 순서로 진행되 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 이어 제2차 회집에 서는 이번에 은퇴하는 장로들에 대한 찬하예 배가 있었다. 총 8명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광림교회에서는 김경래, 이상용, 김일환, 한 채수, 송병제 5명의 장로가 포함되었다.

은퇴장로 찬하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 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나의 좋은 친 구'(요 15:12~17)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은 퇴하는 장로님들은 그동안 하나님 일에 많 은 봉사를 하였는데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 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예 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말은 첫째 어려운 일

이 닥치더라도 늘 나의 곁에 함께 한다는 것이며, 둘째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겠다 는 말씀은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 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 꺼이 내어 주셨다. 셋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친구가 되는 것이며,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더 욱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지난 1년간 총 110명을 전도한 임옥주 권사를 비롯하여 광림교회 에서는 10명 이상 전도한 12명이 전도상을 수상했다. 성경을 3독 이상 한 22명은 성경 통독상을 받았다. 교회학교 근속교사 표창 은 광림교회 이효영 권사는 40년 근속교사 로 뜻깊은 표창장을 받았다.

🔀 이득섭 기자

육사 제79기 기독생도 졸업 · 임관 감사예배

3월1일, 김정석 담임목사 말씀 전하며 기독생도들 축원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 후 정예 장교 를 양성 배출하여 대한민국 수호와 조국통 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 다. 지난 3월 1일(수) 오후 5시, 육사교회에 서는 제79기 기독생도 졸업, 임관 감사예배 가 있었다.

육사는 그동안 전·후방 및 해외파병지마 다 군 장병들을 사랑으로 후원해왔던 광림 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제79기 기독생도 106명을 비롯해 재학생과 교수, 군선교 연 합회, 육군 군종목사단, 국군 기독 부인회, 기타 외부 인사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 여 자리를 빛냈다. 1부 예배에서 김정석 담 임목사는 '한 이방인의 믿음'(마 8:5~13)이 라는 제목으로 "먼저 4년간 각고의 노력으 로 임관하는 졸업 생도들을 축원한다. 조국 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 독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칭찬 하신 본문의 주인공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 있는 장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 다. 로마군 백부장은 로마군단 지휘관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인애의 마음과 예 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 앞에 문제를 가 져와 도움을 청하는 적극적 행동과 믿음의 소유자였다. 둘째, 깨끗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한다. 백부장은 권세가임에도 불구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인 것이었 다. 셋째, 말씀의 능력을 믿는자가 되어야 한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 던 모든 기적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워졌 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 며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국가와 국민 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기독장교가 되기 를 당부했다.

이후 파송 축하 행사에 이어 권영호 장로(육 사교장)의 격려사와 김정석 담임목사의 축 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만찬은 김정석 담임목사의 후원으로 내빈과 재학생들도 같이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윤완선 장로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 및 수여식



2023년 상반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 및 수여식이 지난 3월 5일(주일) 저녁예배 에 있었다.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신성수 장로)에서 광림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 은 저녁예배를 드린 후 김정석 담임목사에 │ 회 장학위원회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게 장학 증서를 수여 받았고, 성도들의 축 하를 받았다.

이번 장학금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 자녀로 대학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성적 우수 장학금(13명)과 감리교 목회자와 선 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9명)으로 총 22명 에게 각각 150~200만 원씩 총 3,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림장학금은 개인 명의 기념 장학금과 기 업 후원 장학금, 성도들의 장학헌금, 장학 위원들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광림교 1999년부터 25년째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여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장학 금은 광림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담 겨 있기에 더 귀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 생들이 마음속에 품은 선하고 거룩한 꿈을 꼭 이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 치며,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기를 바랍니 다"라고 말했다.

🔀 박희윤 기자

포토뉴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22일(수) 부터 새벽 5시 벧엘성전, 새벽 6시 나사렛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3월 7일~5월 16일, 매주 화요일 11시,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다.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더 드리머' 공연을 위한 연습이 한창이다.

담임목사 동정



2/27 글로벌 엘림재단 주한

외국대사 오찬회

2/28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회 및 총회

육군사관학교 기독생도

졸업 · 임관 감사예배

교계지도자 모임

여선교회 총연합회 월례회

장학금 수여식

트리니티성서대학원 개강

3/8~11 지진피해 튀르키예 안디옥 방문

3/12 남선교회 리더쉽세미나 및 직무교육

프레시온 전도학교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PRAY FOR Türkiye · Syria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2000년 6월, 광림교회에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초대교회 이후 최초로 봉헌한 개신교회입니다 기도제목 1. 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2.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며 더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3. 강추위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이재민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조작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현지의 필요 (대피처, 운송수단, 음식, 담요 등)에 따른 도움의 손길이 신속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4.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조대원과 구호팀 및 의료팀, 현지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분들어 주옵소서. 5. 지진의 위험 가운데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

교회는 무너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

튀르키예 현지 교인 세례식



3월 8일 김정석 담임목사와 긴급구호팀은 지 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튀르키예 아다 나에 도착했다. 아다나는 안타키아(안디옥)에 서 자동차로 한 시간 반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진 당시 가장 많은 이재민들이 피난을 왔 던 곳이다. 이날 한국에서 온 구호팀과 현지 성도 30여 명 정도가 함께 드리는 매우 특별 한 예배가 있었다. 세례식과 위로예배였다. 원 래 세례식은 지진 당일(2월 6일) 안디옥 개신 교회에서 계획된 것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8일 담임목사 의 튀르키예 재방문으로 여러 도시로 흩어졌 던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이 아다나의 한 호 텔에 모이게 되었고 이곳에서 위로회와 함께 6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이슬람 국가 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쉽지 않은 결 단이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며 6명이라는 귀한 영혼이 세례를 받게된 것이다. 애초에는 두 명이 세례를 받기로 하였으나 지진 후에 4 명이 더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것이었다.

튀르키예 기독교에는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는 사람을 추천하는 공동체 증언 시간이 있는데, 가족이나 전도자 등 가까운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의 보증인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이어서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고백 순서가 있다.

한 시리아 성도는 50대 남자, 그것도 아랍문화권에서 살았고 수니파 이슬람교도였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하나님의 존재와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다. 또 한가정은 장애가 있던 아들을 돌보며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딸과 10년 전 얻은 아들이같은 날세례를 받게 되었다. 어떤 이는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며 세례를받게 되었고, 한 학생은 선교사 자녀들의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들이 한 명씩 나와 증언할 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축하해 주었다. 어린 아이

부터 50대 시리아 난민까지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눴다. 세례식을 베풀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인간에게 있는 죄, 죽음, 두려움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디옥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며,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세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달리 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한국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우며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호팀은 일주일간 머물며 지진 피해 성도들을 돌보고 이재민에게 광림교회 성도들이 준비해준 구호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사랑부 '궁

'하하 호호' 웃음 가득한 겨울수련회



3월 5일 아침, 그 어느 때보다 상기된 표정으로 예배실에 모인 사랑부 학생들은 설레고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장로)는 매년 3월 첫번째 주일에 겨울수 런화를 간다.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이 목적지인 비전랜드에 도착했다. 봄기운이 가득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채플실에올라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야외에 나

사랑부 김현진 전도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와서인지 평소보다 더욱 힘찬 목소리로 찬양

을 시작했다.

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동행하는 삶을 이루길 소망한다"며 복음을 선포했다.

예배를 마치고 김다빈 전도사의 진행 아래 실내 레크레이션을 하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종목은 OX퀴즈와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서로 참여하겠다고 손을 드는 학생들 덕분에 예배 당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보쌈을 비롯해 푸짐하게 점심식사를 한 사랑부 학생들은 코스활동을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고, 배불리 밥도 먹었으니 영

육간의 강건함으로 신이 난 사랑부 학생들은 팀을 나눠 자유롭게 코스를 이동하며 에너지 를 발산했다.

첫 번째 코스는 겨울수련회의 마스코트인 '눈썰매 타기'로 학생들은 꽤 가파른 코스임에도 소리를 질러가며 용감하게 썰매를 타고, 다른 한쪽에서는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와 농구 게임을 하고, 국기훈련장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실내에서 간식을 먹으며 영화관람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뽐내는 노래방도 인기가 많았다. 활동이 어렵거나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열심히 활동을 해서인지 금세 허기가 진 학생들은 떡볶이, 튀김, 순대 등 분식을 먹으며 간식 타임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사랑부 겨울수련회 일정을 마쳤다.

우형진 장로는 학생과 선생님을 모두 포함해 150여 명 남짓한 인원이 함께한 겨울수런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며, "사랑부 예배가 점점 부흥되고 있는 반면, 교사 혹은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실 손길이 부족하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김익진 집사(사랑부 총무)



(광림교회 소속)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시고 구호 사역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무너진 교회와 교우들의 생활 터전이 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6. 안디옥 개신교회 난민 구호팀이 원활히 활동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구호금 계좌

우리은행 1005-803-992104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입금자명에 '터키'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22일(수)부터 4월 8일(토)까지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본당 에서는 새벽 5시 벧엘성전에서, 새벽 6시 나사 렛성전에서 진행 중이다.

사순절'은 4월 9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하며, 지난 2월 22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되었다. '재의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순절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다. 4월 2일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1주일 앞둔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부터 4월 8

일까지이다. 4월 7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며, 4월 9일은 부활절이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지구촌 이웃과 이재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이다.

광림 홈페이지를 통해 더 은혜로운 사순절 기 간을 보낼 수 있다. 사순절 배너 광고에서 '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실시간 방송 바로 가기, 지난 방송 바로 가기, 핸드북 다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성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갖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하기(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포함),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 돕기를 실천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 이정순 기자



2023년 봄학기 교육프로그램

프레시온 전도학교, 교리교육, 4 Steps 평신도지도자 교육, 츄즈라이프, KSEC개강

프레시온 전도학교

일정 : 3월 12일 ~ 4월 2일 ※3월 12일(1주) 블레싱대한민국 (간증 : 이성미 집사)

강의 : 관계전도

매주 주일 오후 2시 ~ 4시(3주간)

강사 : 황영재 목사 **장소** : 장천홀

접수/등록:선교구(각교구전도사)

/15,000원

교리교육(Step 1 Knowing Jesus)

일정: 3월 5일 ~ 매주 주일 오전 9시 50분 ~ 10시 40분, 기독교 기본 교리(6주 수강 후 수료)

장소: 두란노강의실 대상: 새가족, 세례대상자, 교리를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

접수/등록: 매주 현장접수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 02-2056-5734)

광림 4Steps 평신도지도자 교육

일정: 3월 12일 ~ 5월 14일 때주 주일 오후 2시 ~ 4시(10주) 강의 / 장소 / 강사:

<Step 2> Following Jesus 예수님 의 발자취 따라가기 / 컨벤션A홀 / 윤사무엘 목사

⟨Step 3⟩ Serving Jesus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기 / 나사렛 성전 /

강명남 목사

접수/등록:선교구(각교구 전도사)

/ 15,000원

츄즈라이프(Choose Life)

일정: 3월 12일 ~ 5월 14일 매주 주일 오전 11시 ~ 12시(10주)

주제: 구약의 맥(구약성경 이해)

강사 : 송양근 목사

장소: 두란노 강의실

접수 / 등록 : 선교구(각 교구 전도사)

/ 15,000원

광림평생교육대학원(K.S.E.C)

일정: 3월 9일 ~ 5월 25일(목)

장소 : 사회봉사관 5층

대상:65세 이상 남녀 130명

등록: 3만원(선착순 마감)

문의 : 김우성 권사(010-2772-2247) 김문선 권사(010-2010-2436)



광림영어성경원(EBA), 영어가 다시 살아나다



2021년 코로나 시즌에 유튜브에서 광림교회이선우 교수님의 영어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요한일서를 들었는데 무기력한 나에게 삶의활력을 불어넣을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를기쁘게 했다. 댓글을 달았더니 교수님께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광림교회 영어성경반에 와서 공부하기를 권했다. 코로나 후 2022년 3월영어성경반이 개강을 했다. 교수님의 열강으로 그동안의 망설임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변했다. 요한계시록 수업이 궁금해서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일찍와서 공부를 하고집에 귀가하면 배운 것을 다시 읽어보고 싶을정도로 관심이 크다.

학창시절 영어 과목은 늘 내 발목을 잡는 과 목이었다. 가끔 꿈속에서 시험 전날 영어 때 문에 전전긍긍하는 꿈을 자주 꾸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유 튜브를 통해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도 싫던 영어가 예수님 덕분에 삶에 기쁨을 주었고, 자신감과 의욕도 생겼다. 지금은 매일 성경구절을 영어로 암송한다. 한글로도 못 외우던 성경구절을 영어로 암송한다. 한글로도 못 외우던 성경구절을 영어로 외우니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예수님께서 나이 들어 큰 취미를하나 더 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구절을음미하게 하신다. 내 삶은 영어성경으로 인해달라졌다. 얼마전 공원에서 외국인을 만나 성경말씀으로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도 호기심 있게 듣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전도할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2022년 3월부터 2학기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영어성경반에서 공부했는데 천국 소망이 확 실해졌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 보고 싶다. 7장에 나오는 144,000도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예수님 사랑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던 주식도 끊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후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졌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3월 5일부터 영어성경원에서는 잠언 강의가 시작되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경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권한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잠 1:19) Such are the paths of all who go after illgotten gain; it takes away the life of those who get it. (Prov 1:19)

📩 이희경 권사(27교구)

목회현장

맛을 잃지 않는 법



박범규 목사 (2선교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기록하고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써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합니다.

한번은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가정에 심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때에도 꼭 찾으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식당 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는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결같은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음식의 맛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먹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 었기에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선교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심방할 때면 세 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 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 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 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 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 여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 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였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노 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부 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2선교구 성도님 들의 삶에 가득해지는 것 같아 감사의 고백 이 저절로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께서도 '이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베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 길 축복합니다.

광림서교회

튀르키예를 위한 사랑의 모금



광림서교회는 지난달 대지진으로 인해 사랑 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 리아, 안다옥 개신교회를 위해 사랑의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긴급 구호팀의 구호활동에 함께 동참하고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61교구 교구장 채희철 집사님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과 안디옥 개신교회의 소식 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큰 피해에 놀라기도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림서교 회 모든 성도들은 그 땅에 위로와 회복이 넘 치기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해오던 중 현지 에 파견된 광림교회 구호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사랑의 모금을 진행하였 습니다. 구호헌금함을 만들어 자발적인 정성 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지역 복구와 물품조달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 빨리 튀 르키예 국민들과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이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기를 계속해서 간절 히 기도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처럼, 더 나아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광 립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보고 배우고 즐기다' 겨울성경학교





지난 2월 25일 토요일, 광림북교회에서는 영 유아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며, '광림교회 탐방'과 더불어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뮤지 컬'을 관람하였습니다. 살아 숨 쉬는 광림교회 를 보고, 역사를 배우며, 나아가 한국사 대모 험 뮤지컬 관람을 통해 교회사랑, 나라사랑하 는 마음과 결단을 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아 유 독 교회의 역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습 니다.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던 광림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건물이 이렇게 큰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등 광림교회의 영적 공간들과 부속기관까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날 목회연구원 임재순 전도사의 가이드로 역사박물관에 있는 감독님의 물품들과 교회 의 흔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선도 감독님 을 통해 시작된 광림교회 도약과 부흥, 그리 고 광림의 전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김정 석 담임목사님을 통해 열린 새 시대와 광림교 회가 추구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하나 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탐방이 진행될수록, 다음세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통해 자 신이 광림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정부 민락동을 넘어 지역 사회로, 또한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날 참가한 김수현 어린이는 "저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을 타고 전도하고 싶어요. 저도 김선도 목사님처럼 외국에 나가 전도하고 싶 어요!"라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 도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지면 무궁무진한 생명의 힘을 발휘하듯이, 광림북교회 다음세대 아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4선교구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를 위한 이틀기도회



3월 3일(금) ~ 4일(토) 양일간, 4선교구는 광림 수도원에서 이틀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도 회는 4선교구의 자매결연 선교지 '블라디보스 토크 선교센터'를 위한 자리로, 100여 명의 성 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다. 금요일 저녁 8시, 다락방채플에서 찬양의 선율 이 울려 퍼지고, 먼저 와서 식사를 마친 이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쁘게 달려온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4선교구 정용식 목사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창 32 : 24 ~ 26)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 를 통해 미리 염려하지 말고, 버티는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눈 뒤 1년간 4선교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달라며 부르짖었고 기도회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교회와 나라, 가 정을 위한 기도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오 직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곳곳에 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림수도원 운영을 맡고 있는 신성섭 장로는 "4

선교구의 이틀기도회는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 님이 말씀하신 수도원 설립 취지에 딱 맞다. 수 도원은 어느 하나 비(非)성경적인 곳이 없고 하 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곳으로, 성도들이 기 도하러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첫날 기도회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 6시, 다락 방채플에서 새벽기도회가 열렸고, 정용식 목 사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세수식을 진행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 던 것처럼, 성도들의 손을 닦아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새벽기도를 마친 성 도들은 고 김선도 감독님 묘소에 함께 추모를 하고, 기도동산에 오르는 것으로 이틀간의 여 정을 마무리했다.

이틀기도회를 마치며 정용식 목사는 "오래 전부터 기획한 기도회였는데, 드디어 사랑하는 4선교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은혜 넘치는 자리였다"라고 했다.

📩 한혜선 기자

"G.Y.N LOVE(진 사랑)"

〈LFC 청년부 2023년 겨울수련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약화되었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 하여, 2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국제 광림비전랜드에서 "G.Y.N LOVE(진 사랑)"라 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 고, 향후 군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육 군사관학교 기독생도 30여 명도 동참하여 광 림교회 청년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의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첫 번째 집회에서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도 참여하였던 홀리임팩트 이우람 목사(온누리 교회)의 인도로 열정적인 찬양을 드렸고, 이 종태 목사(CCC대학생사역팀장)의 '크리스천 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사랑관을 배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기도회 말씀을 전한 김주송 목사(청년부)는 '물이 가득차면 저절로 수문 이 열린다'는 주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 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전했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 누는 기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특 강에서 이찬희 집사(아놀자 CPO)는 지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간증하였으며, 삶의 다양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김선정 개그우먼의레크리에이션과 8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련회에 참여한광림교회 청년들과 육군사관학교 기독생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큰기쁨인지 경험하였습니다.

저녁 집회는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홀리임팩트의 찬양과 '터널을 뚫읍시다'라는 주제로 정재원 목사(육사교회)의 말씀이 선 포되었고, 김주송 목사의 인도로 기도합주회가 이어졌습니다. 4시간의 집회 시간 동안 이탈자 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임재를 체험하였고, 은혜가 충만해진 청년들은 이후 1시간 동안 함께 뛰면서 하나님께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황예찬 팀장(국내선 교팀)은 "G.Y.N LOVE를 3개월간 준비하며, 나름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6~7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온 세상을 덮는 눈이 되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하나님의 G.Y.N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상혁 속장(청년 3교구)은 "수련회 기간 동안 속원들과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기도회 시간 동안 뜨겁게 중보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속원들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LFC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과이웃 사랑을 지켜가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지상명령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청년부는 총력전도(4월), 국내교육선교(7월), 성령한국 청년대회(8월), 해외 단기선교와 100교회 건축(9월) 등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하며 성장(JUMP)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아빠와 함께하는 'SSA 체험 학습'



세상에는 다양한 체험 학습이 있지만, 기독 교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체험 학 습은 단연 'SSA 체험 학습'(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학습)입니다.

지난 10월 아들 친구들과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던 중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김재철 장로님(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조차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로님은 휴식 시간임에도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역사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년



11월 19일과 지난 3월 4일 총 2회에 걸쳐 SSA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을 계획하 게 되었고, 아이들과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며 기독교적 관점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SSA(Shining Saturday Activities) 체험 학습 의 핵심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 인식과 기독교 가치관 형성하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이를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SSA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들의 체험 학습 참여를 통한 아이들과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아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다 친구를 좋아하기에 추억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Boston University(201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 참여는 아동의 인지 및 학업발달과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영유아기 자녀의 IQ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셋째, 영혼 구원인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도가 쉬워집니다.

1차 SSA 체험 학습에는 15명, 2차 SSA 체험학습에는 6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SSA 체험학습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도 자녀와의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있을 SSA 체험학습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감충원 권사(14교구)

신앙 간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

저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 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 게 날 늦게 찾으셨을까? 내 밑바닥이 너무 훤해서 숨길 수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하 지만 이런 생각들은 전부 제 교만이었습니 다. 주님은 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와 함께할 순간들을 고 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삶의 경험들로 인하여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에 단 한 명의 속원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갔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눈물 없이 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원들은 단 한 명도 선뜻 수련회를 확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 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혁아, 꼭 데리고 가야 해. 속회에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 데리고 가렴." 저는 한 명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련 회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저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첫째 날 집회 때 이종태 목사님께서 사랑을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정의 는 '양육과 보호'라고 하셨습니다. 속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속장님이네'라고 말했 을 때, 그 한 마디가 제게는 주님께서 제 수 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 녁에는 집회에만 참석이 가능한 속원 2명을 서울에서 픽업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예배당에 앉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속원들을 수련회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저를 신뢰하시며 기회를 주셨다는 감사함, 먼저 온 속원들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감사함, 기도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 뜨거운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속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막 12:30~31)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제 속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얻게 된 체험이 앞으로 제 삶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서상혁 속장(청년부)



마 21:1~5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이야기 26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 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 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 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 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 였느니라(마 21:1~5)

예수와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낸 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가 다시 살아난 일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은 물 론 곳곳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 이 늘어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수천 명의 사 람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 만나기를 고대하

예수는 예루살렘 근처의 올리브산 벳바게에 도착 했을 때 두 제자를 보내며 지시하였다.

"벳바게 마을에 가거라. 거기에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내게로 끌고 오너 라. 만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 요로 하신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보내 줄 것이다."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니 과연 예수의 말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다. 예수의 지 시대로 나귀 새끼를 풀자 그 주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이오?"

두 제자가 그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은 흔쾌히 승낙하였다.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왔다. 한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었다. 예수 는 나귀 새끼에 올라탔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펼쳤다. 구약 시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 놓고 는 예수를 왕으로 맞이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유 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가 전능자의 능력 과 권세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 를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다. 그들은 깃발을 대신하여 나뭇가지 를 꺾어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메시아'를 뜻함)이여, 호산나 (Hosanna,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찬양의 표현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을 맞이하는 듯한 열광적인 모습에 예루살렘 전체가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은 걱정하면서 분노하였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 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 할 것이다."

마치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곧바로



▲ 예루살렘 입성 _ 작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쳐 놓는 사람들,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등 열렬한 환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뒷배경의 나뭇 가지를 꺾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을 더욱 생기가 넘쳐나게 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것 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뒤따르는 제자들의 머리에는 황금색 후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에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이 탈리아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그린 프레스코화이다. 지오토 디 본도네 작품

성전으로 갔다. 그러나 성전은 환전상들의 호객 과 제물에 바칠 짐승을 거래하는 소리로 북적였 다. 화가 난 예수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시장터가 아니다. 그런 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그들 을 모두 쫓아냈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 는 사람들 등 병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예 수는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입 성한 예수를 줄곧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은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에게 따져 들었다.

이에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아이 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책망이 섞인 예수의 답변에 대제사장 무리는 할 말을 잃었다. 예수는 진저리를 내며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갔다.

◀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_ 유월절을 맞이 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고, 그의 제자들 과 함께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 장 히폴리테 플랑드린의 작품 성하는 모습이다.

🐱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 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 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